

“황빠” 이해하기:

책임전가의 정치

과학기술정책연구원
김종영 박사



민교협 토론회(서울대. “황우석 사태로 무엇을 배울 것인가”
2006년 3월 10일: 사진 오마이뉴스)

“황우석 지지자들 서울대 집단난동”

- 오마이뉴스 2006년 3월 10일 보도
- 최다 추천 댓글: <합리적.이성적 사고가 안 통하는 광신도들> (박석고개)

사이비종교에 심취해
자기와 다름을 인정 안 하는 건 물론...

논리적 토론이나 대화는 거부하고
조금이라도 밀린다고 생각하면 집단
으로 몰려가 폭력 행사하고 집기 때
려부수는... 신흥종교 광신도 행태와
판박이인 황박 지지자들....

합리적이고..이성적인 사고가 안 통하
는 신흥 사이비종교 광신도들....

연구질문

- “황빠”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?
- 황우석 지지자들은 어떻게 조직되고 어떤 문화를 형성하는가?
- 과학기술의 대중이해와 참여의 시각으로 황빠현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?
- 황우석 지지자들의 음모론(conspiracy theory)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사회적 함의를 가지는가?

연구방법론

- 온라인 현장조사: Daum Cafe, 민중의 회초리(민초리), 서프라이즈 등의 황우석 지지자 모임 관찰. 사이트의 담론 분석.
- 오프라인 현장조사: 황우석 지지자들의 오프라인 모임 참가, 시위현장 참가, 뒤풀이 참가 및 관찰 등
- 심층인터뷰: 지지자들, 특히 운영자와 리더들을 중심으로 인터뷰. 지지이유, 황우석 사태의 원인과 분석, 음모론에 대한 견해, 지지활동 등에 대한 질문
- Member's point of view의 이해와 중요성

“황빠”에 대한 기존 설명(1):

스톡홀름 증후군

- 1973년 스톡홀름 은행강도의 인질들에게서 나타난 집단적 심리병리현상.
- 문신용 교수의 발언(2006년 1월 3일): 논문조작 사실이 밝혀진 이후에도 황우석을 지지하는 것은 일종의 인질효과
- 스톡홀름 증후군의 비유: 황우석=강도, 범죄자, 황빠 = 인질의 이분법. Labeling strategy (딱지 붙이기 전략의 일종).
- 비판: 이분법적 심리적 환원주의. 황우석 사태는 범죄자와 인질의 상황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복잡한 상황. 책임소재의 단일화. 황우석 사태 초점의 왜곡.

“황빠”에 대한 기존 설명(2): 인지부조화이론

- 최종덕 교수님의 그린왈드의 인지보수성에 의한 황빠현상 설명. 링고의 Yahoo 만화.
- Festinger(1957): 두 개의 인지가 연관이 있다면 서로 조화(consonant)를 이루거나 부조화(dissonant)를 이룬다. 사람들은 인지부조화상태를 줄이려는 경향이 있다.
- “황빠”는 인지부조화: 줄기세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황우석을 지지하는 것은 황빠들의 믿음의 강화에 의한 인지부조화를 줄이려는 시도. 종교적 광신도들과 비유.

인지부조화를 줄이는 다섯가지 방법 (예:범STS 연구자와 STS 연구의 경제성)

- 가정: (1) STS를 연구 또는 공부하고 싶다 (consonant cognition: CC) (2) STS 전공으로는 직업을 잡기 힘들고 돈이 되지 않는다 (dissonant cognition: DC)
1. 행위의 변화: STS 공부를 포기한다.
 2. DC를 인지에서 제거한다: STS공부는 직업과 돈과 관계없다.
 3. CC의 강화: STS 공부는 나에게 성취감과 행복감을 준다
 4. DC의 중요성을 감소: 돈과 직업은 STSer에게 중요치 않다.
 5. CC의 중요성을 증가: 나는 STS없이는 못산다.

“황빠” 인지부조화론의 한계

- 인지부조화이론은 인지를 설명하는 일반이론으로 “황빠”에게만 적용될 수 없다.
- 인지부조화론은 이성적이고 계산적인 인간을 상정한다.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행위를 밀도있게 이해할 수 없다.
- Festinger et al. (1956): “When Prophecy Fails”의 내용은 황우석 사태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. 황우석 박사는 종교지도자가 아니며 황빠들은 믿음에 의해 황우석을 지지하지 않는다.
- 심리학적 설명은 황우석 지지의 복잡한 context를 고려하지 않는다.

“황빠”에 대한 기존 설명(3): 유사파시즘

- 최장집 교수: 2006년 1월 12일 발언.
- 전규찬 교수(2006): “민족주의적 나르시시즘, 진리 때문에 신화가 해체될까 봐 두려워하는 집착 증적 정신착란, 숭배하는 영웅의 현신을 도덕률로 삼는 소부르조아적 마조히즘. 신비주의 선전에 의한 사적인 삶과 정치권력의 합체. 인종적 민족주의, 권위적 가족주의, 종교적 신비주의의 요소가 공통적으로 깔려 있다.”
- “국익의 담론이 구원이라는 유사 종교주의와 결합하여 신비주의가 연출되고, 궁극적으로 파시즘의 심리가 대중적으로 강화된다”

황빠현상은 유사파시즘?

- 파시즘의 특징: 민족주의, 폭력, 내부 정화와 외부 확장
- Robert Paxton의 파시즘의 다섯 단계(사회운동, 정치결사체, 권력획득, 권력행사, 지속적 지배)에서 두번째 단계도 성공적으로 이루지 못한 경우.
- 황빠현상은 적어도 광범위한 폭력을 동반하지 않는다. 사회의 재질서화와 정치경제적 권력의 분배를 동원하지 않는다(혁명적이지 않다). 정치적 결사체로 발전하지 못했다. 황우석 자신이 대중운동을 바라지 않고 있고 대중들의 지지를 점점 상실해 가는 상황
- 황우석 신뢰도(KSOI 통계): 87%(2005/12/13) → 37.6%(2006/4/11).
- 일상적 파시즘? (임지현): 정치적, 제도적 파시즘이 아님. 파시즘적 심성과 파시즘적 아비투스?

“황빠”에 대한 기존 설명(4): 맹목적 애국주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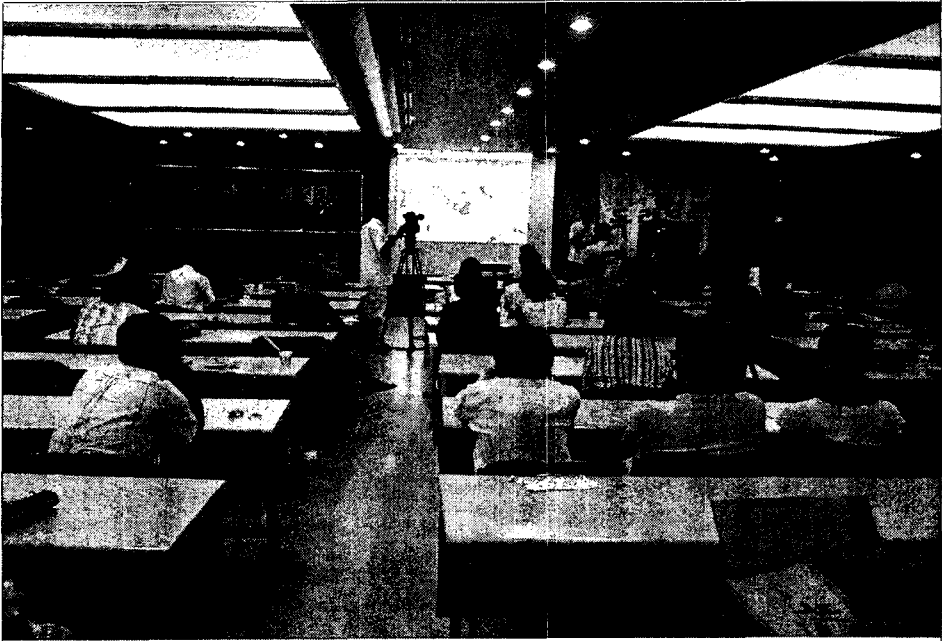
- “맹목적”의 의미: “주관이나 원칙이 없고 덮어놓고 행동하는”의 뜻. 비판, 이성의 결여.
- 애국주의는 명확한 황빠현상의 중요한 부분.
- “애국주의”가 황빠현상의 전부는 아니다(인터뷰): 처벌에 관한 형평성의 문제. 황박사 개인에 대한 인생역정에 대한 연민. 윤리문제에 대한 이중적 잣대에 대한 비판. 한국조직문화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로서의 책임을 부당하게 짐. 줄기세포가 300조의 이익을 가져다주지 못해도 여전히 황박사를 지지할 것임.



2006년 삼일절 집회(광화문. 사진: 아이러브 황우석)



2006년 삼일절 집회(광화문. 사진: 아이러브 황우석)



황우석 지지자들 활동계획 모임(장소: 서울교총회관 사진: 김종영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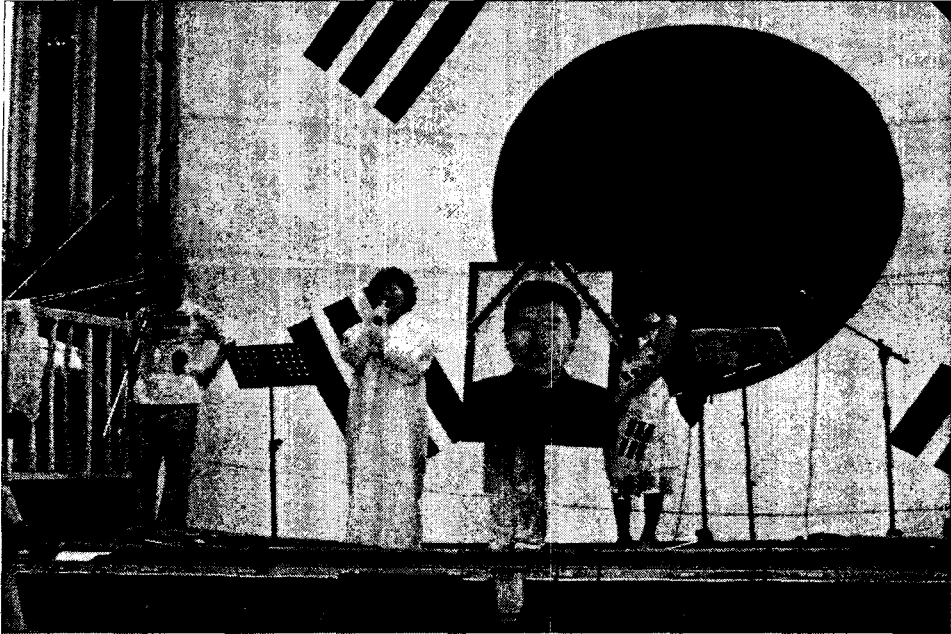
황우석 지지자들 운동회 (장소: 양재고등학교. 사진: 김종영)



황우석 지지자 광복절 집회(여의도 MBC. 사진: 김종영)



2006년 광복절 카퍼레이드 (시청앞. 사진: 김종영)



2006년 광복절 광화문 집회(정해준씨 미망인. 사진: 김종영)



9월1일 한국방송대상 한학수 피디 시상 향의집회(KBS 앞. 사진: 서프라이즈)



황우석 공판에서의 지지자들 (2006년 11월 14일 사진:김종영)

대중의 과학이해와 참여모델

- 결핍모델 (deficit model): top-down 모델, 대중의 무지 모델, 통계적 주체의 구성.
- 합리적 선택 모델(rational choice model): 방법론적 개인주의, 사회적 맥락성 무시. 합리성이 애매한 경우, 합리적 주체의 구성.
- 맥락 모델 (context model): 사회적, 과학기술적 맥락 중시. Specification의 문제.
- 대중의 정책참여 모델: 대중의 낭만화. 과학운동에 대한 역사적, 문화적 관점의 부재. 형식적 정치주체의 구성.

황우석 지지자 모임

- 온라인에서의 정보교환, 황우석 사태 분석, 모임공지, 황우석 지지 여론 확산
- 오프라인: 집회참가, 전략회의 모임, 황우석 박사 재판참여, 뒤풀이, 서명운동, 운동회, 번개모임 등.
- 현재 인원(2006년 8월): 열성적, 적극적 참가자들 500여명.

황우석 지지자들의 형성

- 언론의 황우석 보도에 영향.
- 강한 민족주의적 성향.
- Daum Café: 아이러브 황우석(알럽황), 어게인 황우석, 황우석을 지지하는 네티즌 연대(황지연), 황우석 난자기증모임(난기모), 황우석 지탄 국민연대(황지국)*
- 민중의 회초리(민초리): 황우석 지지자들중 초기에 정치세력화를 도모하는 그룹
- 서프라이즈: 노무현 지지세력과 황우석 지지세력의 교집합. 내부분열.
- 정치웹진 판, 국민의 소리, 플러스 코리아, e 조은뉴스: 황우석 지지 언론

황우석 지지자들의 인적 구성

- 지도부와 다수 참여세력: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토론 진행. 교육받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그룹.
- 과격파(?): 몇몇 지지자들(서울대 민교협 토론 등 각종 학술대회 방해), K씨(황우석 지지 강경파. 폭력혐의로 징역 1년). A 여성회원(노정혜 연구 처장 머리채를 잡은 혐의로 연행).
- 정치지망생과 이론가들: 백승원 서울시장 후보, 전직공무원 M모씨. 고준환 전 경기대 교수(음모론 담론의 핵심: “뺨에 걸린 황우석”)
- 불교신자들: J모 교수, 여자 불교 신자분들
- 황우석 지지 인터넷 언론: 국민의 소리, 플러스 코리아, e 조은뉴스, 정치웹진 판.

황우석 지지모임의 집단 역학

- 피라미드식 지도체제 또는 집중된 지도체제가 존재치 않고 주요 사이트의 운영자 중심의 집단 지도체제
- 권력의 중심이 없어 운영과 조직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
- 잦은 싸움과 다툼으로 분열을 거듭: 알럼황의 내분. 황지연, 국토대장정팀, 어게인 황우석 등으로 분화, 황지국의 변화, 서프라이즈내의 다툼
- 민주적인 의사결정체계: 합의도달에의 어려움.

Imagination as Social Practice and Struggle

- “줄기세포가 없더라도 좀 덮어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? 기술의 선점이 중요하잖아요. 미래의 경제적 이익이 360조인데 이것만 되면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는 게 가능하잖아요” -노정혜 교수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여성회원과의 대화에서
- 미래 비전에 관한 투쟁: 선진국과 강대국으로서의 한국 vs 신뢰와 윤리가 구축된 한국사회
- 꿈의 파괴에 대한 분노와 좌절: 황우석의 잘못을 인정하지만 미래의 꿈을 송두리째 앗아갈 정도의 잘못인가에 대한 문제제기. 집회에 참가한 초등학교 교사와의 인터뷰

Politics of Accusation

- 황우석은 모든 것을 잃을 만큼 중죄를 지었는가?
- 새튼과의 형평성. 특허 선점.
- 노성일과 문신용의 책임.
- MBC PD 수첩의 보도윤리 위반.
- KBS 추적 60분 방영 불가.
- 황우석 사태를 전후한 조중동 등 주요언론의 뒤집기.
- 김선종의 섞어심기.
- 제보자의 2004년 논문 주요가담.
- 정명희 교수의 황우석 팀 기술 폄하.
- 노무현 정부의 책임: 국정원과 내부 핵심세력
- 비난은 황우석만 받아야 하나?

Logic of Accusation

- 황우석 지지자들은 황박사의 논문조작을 인정.
- 논문조작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존재: 국가와 민족의 이익. 360조의 이익. 큰 것을 위해서는 작은 잘못이 용인될 수 있다.
- 윤리문제를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. 왜 황우석만 윤리적이어야 하나? 이중의 잣대 비판
- 논문조작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줄기세포가 가지는 과학기술적, 역사적 중요성을 편협하게 바라보는 시각.

황우석 지지자들의 Accusations

- (1) “에씨, 지들은 그렇게 깨끗하데요?”
- 30대 주부, 연구윤리를 지적하는 과학자들과 지식인들을 비판하며
- (2) “잘 되는 꼴을 못 봐요. 잘 되는 꼴을. 개새끼들아. 네들이 세계에 우리나라 망신 준 것 밖에 더 있어! 에이 개새끼들아”
- 40대 주부, 815 집회 당시 마이크로 MBC 건물을 향하여 MBC를 비판하며
- (3) “권력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은 황박사님이 잘 나갈 때 뭐 좀 얻으려고 불나방처럼 뛰어들다가 사건이 터진 후에 자기가 다칠까봐 코빼기도 안보여요. 정말 인간적인 배신감을 느껴요”
- 40대 초등교사. 한국 기득권 세력들을 비판하며

처벌의 형평성

- 황우석 박사는 김선종으로부터 속음.
- 새튼의 독촉으로 빠른 시일 내에 많은 수의 줄기 세포 완성을 해야 하는 부담감. 새튼의 특허문제.
- 한국대학의 부패와 부정의 만연: 연구비 횡령, 데이터 조작, 표절 등에 관한 문제. 황우석만 깨끗해야 된다?!
- 한국정부는 정의실현을 위해 황우석을 단죄하였다?: 이라크 파병을 한 부정한 정부가 왜 황우석에게만 정의를 칼을 들이대나?!
- 사회비판으로서의 Accusation.

사회적 위기와 설명

- 중대한 사건은 단일하고 인과적인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: 다양하고 경쟁하는 의미들이 공존하거나 충돌.
- 중대한 사회적 위기는 설명을 “요구”한다: 한국 전쟁, IMF 경제위기, 황우석 사태 등
- 위기에 대한 설명은 구성원의 정체성과 사회적 행위와 결부된다.
- 위기 때 혹은 위기를 전후로 주요 사회적 가치들은 충돌한다.
- 황우석 사태에서 설명방식으로서의 음모론: 개인의 민족 정체성과 권력관계를 투사하는 방식으로 구성됨. 엘리트와 지배세력에 대한 공격.

음모의 문화(1): 다양한 음모론과 불신의 문화

- 다양한 음모론: 미국 음모론, 삼성 음모론, 유태인 음모론, 외국 금융펀드 음모론, 노무현 내부세력의 음모론, 북한 미사일 음모론
- 불신의 문화: 자신들의 세력을 음해하려는 프락치와 알바들이 많다고 생각. 강경파와 온건파는 서로를 프락치라고 공격.

음모의 문화(2): Semi-erudition and Will to connect

- Semi-erudition (어설픈 박식함. Adorno): 후설에서 줄기세포까지. 세계금융시장에서 CIA의 작전까지. 여러 박식한 지식들로 황우석 사태를 설명하고자 하나 음모론이라는 지름길을 채택.
- Will to connect (연결에의 의지): 분절된 현상들을 일으키는 원인이 존재한다고 생각. 궁극적으로는 황우석 사태를 계획한 master가 있다고 생각.

음모의 문화(3): 사회과학주의

- Social Scientism: 사회과학적 개념이 통하지 않는 곳에 무리하게 적용하는 경우. 핵심세력들은 사회과학적 지식과 사고에 능함.
- Behindology (Knight 2000): the sociology of "the invisible"
- 황우석 사태의 원인과 분석에서 실험실의 과학 행위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 권력관계와 이해관계로 환원하려는 경향.
- 전도된 권력관계에 대한 인식: 약자로서의 황우석(수의사, 한국과학자, 순진한 과학자, 불교신자 등)

음모의 문화(4): 줄기세포로서의 민족

- 줄기세포는 민족을 상징화
- 줄기세포를 빼앗거나 없다고 주장하는 세력은 한민족을 음해하거나 (미국, 유대인 등) 혹은 개인적 이익에 눈먼 세력(외국 금융투기세력, 노성일, 삼성, 노무현 등)
- 과학기술독립으로서의 줄기세포: 외세로부터의 독립을 상징화
- 상상화된 민족/상상화된 줄기세포 vs. 상상의 적: 최종의 진리와 진리를 은폐하려는 세력과의 투쟁.

Science Enclave?

- 정의: 특정 과학현상 또는 자연현상에 대해 과학자 집단의 다수와 사회적 다수에 의해 용인되지 않는 논리를 가지면서 정당화된 제도적 기반이 미약한 주변 집단.
- 황우석 지지자 모임: 언론과 권력의 지지가 빠져 나간 후 급작스럽게 빈 황우석 지지의 공간에 상대적으로 권력과 자원에서 열등한 위치에 있는 열성 지지자들의 집단. 과학적 절차에 기반하기 보다는 책임전가의 정치를 꾀으로서 황우석을 비판하는 주요 사회세력에 대해 저항.